
미디어통계

Week 11 Assignment

관심사 관련 T-test, F-test, Factorial ANOVA,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가설 작성

학과	미디어학과
20조	201222714 이혜린
	201021233 정주영
	201621081 김유빈
	201621083 나영윤

■ 관심사에 대한 소개

저희 조는 공통 관심사를 '성적'으로 정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성적 중에서도 저희가 정한 것은 가장 와닿는 '아주대학교 학업 성적'에 대한 것입니다. 관심사를 성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대학 생활에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할까 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원 네 명은 성적으로 관심사가 좁혀진 후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조는 1학년 두 명과 3학년 한 명, 4학년 한 명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과의 많은 수업을 들어온 두 명과 이제 수많은 수업과 성적을 마주해야 하는 두 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입장에서 성적의 의미와 조사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성적이란 성실성, 자기 개발, 진로에 대한 척도, 학과 공부에 대한 애정 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동의한 후 성적을 공통 관심사로 정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결정된 성적의 identity에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적 요소(복수 전공, 심화전공, 입학성적의 영향, 통근 수단 등)에 대한 변인을 통해 성적의 추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관심사에 대한 설명과 정리 (연구현황을 포함)

성적(학업 성취) 결정기제의 규명은 교육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구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의 인지적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이자, 향후 획득하게 될 사회경제적 지위의 단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함 함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라는 것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식 뿐만 아닌 학교 교육을 통해 터득한 여러 기능, 태도 등 포괄적인 학습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그간 학업성취 결정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학업 성취 결정기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대체로 사회계층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해 왔다. Coleman et al(1966)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한 대표적인 학자로 볼 수 있다. Coleman et al은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가정 배경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 내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후 수행된 연구들 에서 가정배경은 가장 일관되게 학생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김경근, 2005; Mosterller & Moynihan,1972; Jencks et al, 1972)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해서 Wellman(1947)은 지능과 각 과목이 .57~.69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지능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높은 학업성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지능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학생이 어떤 과목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나 자신감이 학업 성적에 정적 관계를 부이고 있고 (정우홍, 양정호,2005) 자아 효능감 역시 학업 성적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김성식, 2006) 특히,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 비교연

구에서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박현정 외,2005) 학업 성취도에 따른 연구는 초등, 중등 교육 등 대학 입학 전의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대학 입학 후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다양한 연구현황들과 실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을 종합하여,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 해 보았다.

참고: (구본희, 학습동기, 학업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2014; 김수혜 외, 가정배경, 사회심리학적 매개요인들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2010)

■ 관심사와 관련된 가설 도출 및 설명

1. T-test

- 가설: 전과를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대학 학점 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이유: 전과 학생은 부전공과 복수 전공이 있고, 아닌 학생으로는 심화 전공으로 정의한 후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 부 전공이라는 것은 저희 학과가 부전공인 경우, 타 학과가 부전공인 경우 같은 변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여기서 변인을 선택한 것은 전공 만족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전공 만족(Academic major Satisfaction)은 전공 분야의 선택 후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다.(김태희, 장경로, 2007) 이러한 감정 반응은 대학 진학 후 전공 수강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이 출발점이 되며, 학기가 진행 될수록 보다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최종적이고 종합적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Vroom(1964)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특정 사항에 대해 사전 기대를 하고 활동을 통해 성과 평가를 하며, 그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 확률을 높인다고 설명함으로써 대학 진학 후 초기 전공만족이 동기 부여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입학 초기 내지 학기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전공 만족이 동기부여원천이 되어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복수 전공 및 미디어 통계로의 부전공의 경우 전공만족을 하기위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전공 만족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있다. 따라서 복수 전공과 미디어 통계로의 부전공은 양의 성적 관계를, 반대로 아닌 심화전공의 경우 음의 성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전공 선택의 요인을 가정적, 개인적, 직업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 3〉 전공선택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변수명	문항	요인 적재량	Eigenvalue	누적 cumulative	신뢰성
전공 선택 요인	부모의 인생관의 영향으로 선택	.865	7.887	24.647	.928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받아 선택	.843			
	가정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아 선택	.831			
	가정의 분위기에 의해 선택	.816			
	부모직업의 영향을 받아 선택	.772			
	자녀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 선택	.761			
	부모의 권유에 의해 선택	.738			
	형제자매의 영향으로 선택	.734			
개인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선택	.654	6.897	46.200	.923
	직업관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선택	.830			
	흥미 내지 관심영역에 부합하여 선택	.827			
	장래 희망과 매치되어 선택	.814			
	가치관과 연관성이 높아 선택	.800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택	.786			
	전반적인 능력에 부합하여 선택	.734			
	관광지식을 습득하고자 선택	.680			
직업적 요인	관광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때문에 선택	.677	2.257	53.252	.830
	전공분야 취업 시 직업적 안정성으로 선택	.812			
	취업 시 급여 등 근로조건 때문에 선택	.795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싶어서 선택	.628			
	취업전망이 좋아 선택	.614			
환경적 요인	졸업 후 진로분야가 마음에 들어 선택	.603	1.870	59.096	.833
	친한 선배의 영향을 받아 선택	.792			
	진학담당 교사의 권유 내지 영향으로 선택	.756			
	친구의 영향을 받아 선택	.726			
	담임교사의 권유 내지 영향으로 선택	.716			
전공특 성 요인	사회적 인정을 고려하여 선택	.629	1.623	64.168	.810
	관광전공의 인기성 때문에 선택	.781			
	관광전공의 성공가능성 때문에 선택	.758			
	관광관련학과의 특성(화) 때문에 선택	.667			
	합격 내지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649			
관광전공의 장래성 때문에 선택	.616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적 요인의 경우 직업관과 일치하는 경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적인 요인의 경우 전공 분야의 취업 시 직업적 안정성을 선택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복수 전공을 하는 요소 중에 취업이라는 요인이 중시됨이 보이는데, 취업이라는 변수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설문 결과인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것 두 가지가 처음에 언급된 '전공만족(Academic major Satisfaction)'에 기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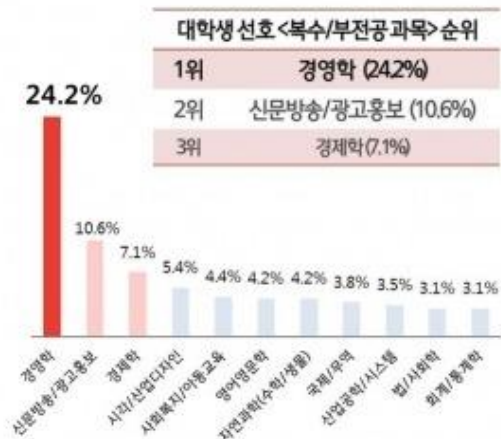
〈복수/부전공을이수하는이유〉

(N=480)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수하는 복수/부전공과목〉

(N=480)



출처: 대학 내일 연구소, 2013(이수중

따라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인 학생들과 심화 전공인 학생들의 차이에 따라 성적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F-test

- 가설: 대학 입학성적(대학 수학능력평가) 성적과 대학교 학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이유: 서울대 졸업생들의 단과대별 학점 분석 결과 인문대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자연대·공대에서는 수시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서울대측은 "다독과 자율적 공부가 필수적인 문과에서는 사교육을 덜 받아온 지역균형, 기초지식이 필수적인 이과에서는 특수 고 출신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국민일보) 첫째,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부성적은 높으나 수능점수는 떨어지는 수시모집 학생들의 경우, 대학학업성취도의 평점평균은 정시모집 학생들의 평균평점보다 낮았다. 둘째, 학생부성적과 대학학업성취도 상호간 그리고 수능성적과 대학학업성취도 상호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중 학생부성적과 대학학업성취도 상호간의 관계가 더 높았다. 셋째, 학생부성적과 수능성적이 대학 1개년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학생부성적이 수능성적보다 더 영향력이 컸다. 위 연구를 참고 하더라도 학생의 대학 입학성적인 수능성적과 대한의 학점사이에 영향력이 유효할 것이라 생각되 이 가설을 설정 하게 되었다.

올해 서울대 각 단과대 졸업생의 입학 전형별 학점 비교										
	인문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자연대	생활과학대	약대	공과대	농생대	사범대	간호대
수시(특기자)	-	3.88	3.98	3.76	3.46	3.29	3.61	3.46	3.54	3.62
수시(지역균형)	3.73	3.63	3.38	3.49	3.50	3.31	3.50	3.58	3.67	3.67
정원외(농어촌)	3.61	3.54	3.44	3.06	3.77	2.48	3.12	3.11	3.50	-
정원외(특수교육대상자)	-	3.63	-	2.73	-	2.98	-	-	-	-
수시모집	3.59	3.63	3.55	3.39	3.69	3.64	3.36	3.46	3.55	3.60
정시모집	3.45	3.50	3.48	3.25	3.43	3.03	3.22	3.32	3.41	3.29
정원외(근무자)	3.43	3.64	-	3.41	-	2.03	3.08	-	3.33	-
정원외(영주자)	3.15	3.06	2.70	-	2.87	3.23	2.66	-	3.07	2.10
학사편입학	3.69	3.58	3.79	3.03	3.63	3.81	3.15	-	3.47	3.68
외국인편입학	2.90	-	2.69	-	-	3.08	-	-	-	-
정원외(외국인)	2.81	2.80	3.54	-	2.59	2.70	2.35	-	-	-
특차	-	3.38	3.46	3.10	3.62	-	3.09	3.22	3.57	-

* 4.5점 만점, 지역균형 선발로 입학했던 졸업생이 포함된 10개 단과대학만 비교

〈자료:김영진 의원실〉

참고: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찰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경희)

3. Factorial ANOVA

- 학교 통근 거리와 통근 수단(자가용/대중교통/도보/자전거/그 외) 의 차이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유: 통근거리가 성적에 영향이 있는 근거를 위주로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통근거리 및 통근 시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구체적 논의 는 이변송(1998)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가 소유 가구, 고학력, 전문직일 경우 원거리 통근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 이후 동분야의 연구가 지속되면서, 교외화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효과(전명진, 정명지, 2003),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에 대한 밀도의 상반된 효과, 등이 밝혀졌으며 통근거리와 통근 시간의 관계를 고려한 분석(전명진,2008)이 시도되었다. 또한 통근 통행의 경우 통행 거리의 변화는 개인의 주거 또는 목적지의 이동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조상규, 2008) 따라서 통근 거리의 결정은 주거와 목적지의 복합 입지에 대한 주체의 공간적 의사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통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근통행 수단 분담률 표를 기반으로 대졸 이상과 대졸 미만, 비 가구주와 가구주 등의 능력적인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표 2. 통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근통행 수단분담율

통근자특성		통근수단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평균변화율
학 력	대졸 미만	버스	62.4%	49.2%	36.7%	32.4%	-19.4%
		전철	17.4%	15.8%	18.0%	18.5%	2.4%
		자가용	20.1%	34.9%	45.3%	49.1%	37.3%
대졸 이상	버스	32.3%	26.8%	25.6%	22.9%	-10.7%	
	전철	17.2%	18.1%	23.0%	22.6%	10.2%	
	자가용	50.6%	55.0%	51.4%	54.5%	2.7%	
가 구 주	비 가구주	버스	61.8%	54.7%	45.1%	37.8%	-15.0%
		전철	21.7%	20.8%	24.9%	25.3%	5.7%
		자가용	16.5%	24.6%	30.0%	36.9%	31.3%
여 부	가구주	버스	48.5%	33.1%	25.4%	21.4%	-23.6%
		전철	15.6%	14.9%	18.2%	18.6%	6.6%
		자가용	35.9%	52.0%	56.4%	60.0%	19.9%
성 별	여성	버스	64.7%	59.4%	49.1%	40.7%	-14.2%
		전철	21.8%	20.8%	24.8%	26.9%	7.7%
		자가용	13.5%	19.8%	26.1%	32.4%	34.2%
	남성	버스	48.6%	32.6%	24.0%	20.2%	-25.1%
		전철	16.0%	15.2%	18.4%	17.9%	4.4%
		자가용	35.4%	52.2%	57.6%	62.0%	21.8%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자료, 통계청, 각 년도.

2차 출처: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통근수단 선택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명진, 백승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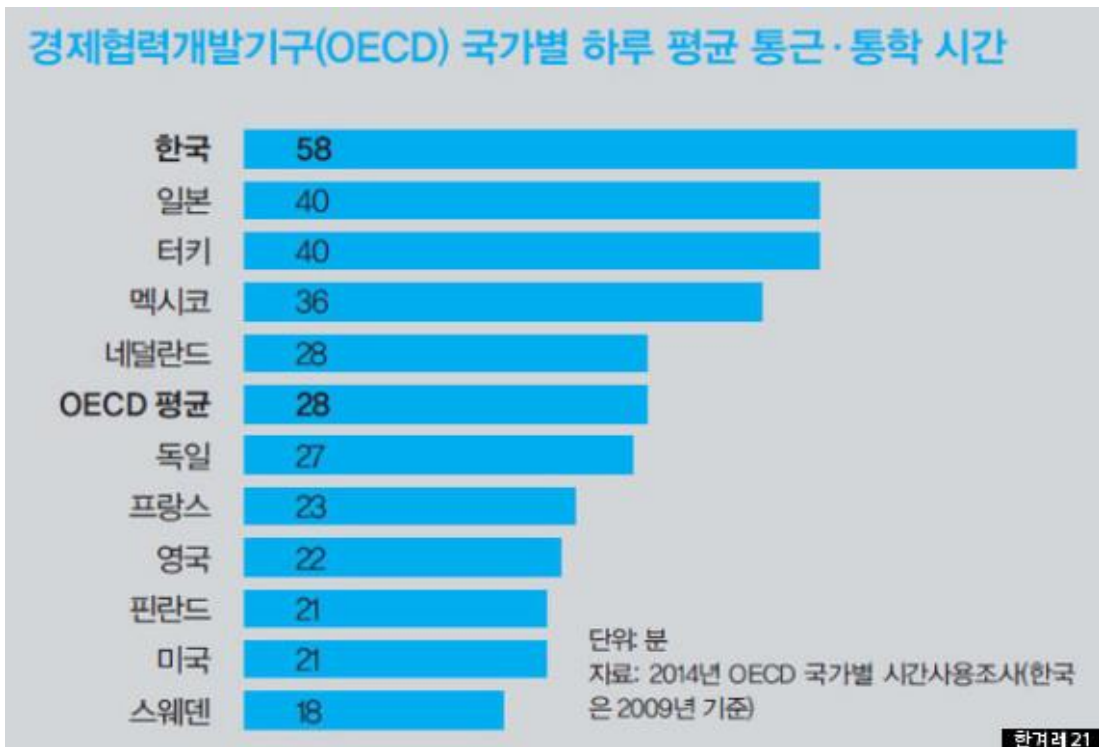
여기서 보면 대졸 미만과 대졸 이상의 경우 학력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학내 성과와 유관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졸 미만의 경우 버스의 사용량이 많은 것과 반대로 대졸 이상의 경우 자가용이 5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란 집단을 대상으로 버스, 전철, 자가용에 대한 변인들로부터 성적의 추이를 보기에 적절한 근거들이라 판단했다. 또한 아래의 표를 보면 수도권 지역별 통근 통행의 수단 분담률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별 통근 통행에 대해 위의 표와 대조하여 '이용하는 모든 인구 분포 중에' 학력의 차이, 성별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가늠할 수

표 1. 수도권 지역별 통근통행 수단분담율

통행방향	통근수단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평균변화율	
수도권 전체	버스	52.3%	40.1%	31.6%	26.9%	-19.8%	
	전철	17.3%	16.8%	20.3%	20.8%	6.9%	
	자가용	30.4%	43.1%	48.1%	52.2%	20.7%	
도착지 기준	서울	버스	47.0%	38.6%	32.7%	27.7%	-16.1%
		전철	21.4%	21.7%	28.2%	30.7%	13.4%
		자가용	31.6%	39.7%	39.1%	41.6%	10.2%
	인천	버스	68.8%	45.1%	31.0%	26.7%	-26.6%
		전철	6.6%	4.4%	7.8%	9.2%	20.5%
		자가용	24.7%	50.5%	61.2%	64.1%	43.5%
	경기	버스	64.4%	42.6%	29.2%	25.6%	-25.9%
		전철	7.1%	5.4%	6.9%	6.7%	0.1%
		자가용	28.4%	52.0%	63.9%	67.7%	37.3%
출발지 기준	서울	버스	47.6%	41.8%	33.5%	26.6%	-17.5%
		전철	19.7%	21.0%	29.8%	34.5%	21.5%
		자가용	32.8%	37.2%	36.6%	38.8%	6.0%
	인천	버스	60.4%	44.2%	29.6%	26.9%	-23.1%
		전철	14.3%	7.4%	12.6%	12.8%	7.9%
		자가용	25.4%	48.4%	57.8%	60.4%	38.2%
	경기	버스	58.4%	36.2%	30.1%	27.2%	-21.6%
		전철	14.0%	15.0%	12.7%	11.2%	-6.7%
		자가용	27.7%	48.8%	57.2%	61.7%	33.7%

있다.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자료, 통계청, 각 년도.

또한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의 과도한 상승과 수도권의 지역별 주택 가격 격차가 장거리 통근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서울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인구가 261만 명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아래 표를 통해서 통근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근 시간에 따라 성적의 추이가 달라질 거라는 상호 정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ANOVA 테스트를 하면 성적의 변화가 통근의 수단 및 시간에 따라 정의 관계에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Regression

- 가설: 중앙도서관 이용빈도 와 학점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이유: 과거의 교사 주도적이고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는 학교도

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비롯하여 학교 자체에서 장서의 질과 장서 종류의 구성에 관해 심사숙고하는 장서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에 의해 정보활용교육/도서관 이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도서관의 장서와 관련하여 많은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 2003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루어진 Burgin(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읽기/영어 시험 점수를 학업성취도 측정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학생 100명당 장서 구입과 잡지/신문과 같은 발간물 구입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학생 100명당 전자 정보 제공(온라인 DB검색 서비스, 인터넷 접속 등)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온라인 연속간행물 서비스를 많이 구독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CD-ROM 서비스를 많이 구독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이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빈도도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정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가설을 도출하게 되었다.

참고: (학교도서관 이용과 학업 능력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이지연)

5. multiple regression

- 가설: 대학 생활 태도, 진로계획, 지능이 대학생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유: 가정배경이나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 등과 대학생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각 요인들은 대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학교나 학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습태도 등 과정요인이 대학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계획이나 취업 계획 등을 포함하는 진로계획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어 그 영향력이 유의미할지 궁금해졌다. 학업 성취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중(2007)은 학업 성취도가 하나의 요인에 의한 인과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며, 학교 요인, 교사 요인, 가정 요인, 학생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범모, 이성진(1979)은 학업성취도를 학교 학습에서 제공하는 학습 과제의 숙지 정도라고 보아 학업성취력의 결정 요인을 학습자 요인, 수업 요인, 환경 요인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 외에 다양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의 영향요인으로 설정된 것들 것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자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이상준 (2007)	학교요인, 교사요인, 가정요인, 학생 개인요인
정범모·이성진 (1979)	학습자요인, 수업요인, 환경요인
Walberg (1979)	학생적성요인, 학습지도요인, 사회·심리적 환경요인
송미영·이봉주 (2011)	학생수준변인, 학교수준변인
김형관 (2001)	개인배경변인, 가정배경변인, 대학배경변인
신정철·정지선·신태수 (2008)	투입요인, 과정요인
조범진 (2012)	입학 전 요인, 입학 후 요인

다

음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만족도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도의 하위요인으로 여겨지며(정종권,1998), 적응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학 만족도에 대해 이경의,임석욱(2010)은 학교 만족도와 학교 만족도의 영역을 측정해 학교생활만족도를 산출하였고, 임상인,이소란(1999)은 사회과학부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에 대한 sakssaks, 주 사용하고가에 대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외에 대학생활 만족도 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의 다양한 논문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김현철 (2005)	학교·전공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높은 성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욕, 출석률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황여정·김경근 (2006)	교우·교사와의 관계, 교수학습 만족도, 내재적 학습동기 등이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나, 학업성취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신정철·정지선·신택수 (2008)	대학만족도는 직접적, 혹은 강의태도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준다.
신현대·이정기 (2008)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교생활 만족과 상관을 가지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
박순혜 (2004)	성적이 상의권인 집단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시설만족도에 해당)이 유의한 영향을 준다.
권은경 (2006)	학교 도서관 시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결과를 준다.
Frazier (1993)	학교 시설 및 학습기회의 결과 이용 접근성이 좋을수록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또한 다른 독립변인인 진로를 살펴보면, Super의 진로발달단계에 의하면 대학생은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 초반에 속한다. 탐색기는 선택을 좁혀나가는 시기고, 확립기는 시행착오와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생 r시기에는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김순정, 2000) 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있다.

연구자	대학생의 진로
김순정 (2000)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해야 한다.
김정환·황혜자·설기문 ·박영태·최은영 (1994)	교수나 상담전문가와 별다른 의논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의 대학생만이 구체적으로 진로선택을 하고 있었다.
곽형식 (1997)	대학교육 중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양교과, 전공교과, 산학협동,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통한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대용·류동희·김인환·고태용 (2011)	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적성과 흥미이다.
이종찬 (2013)	대학입시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진로결정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가 좋으면 더 공부를 잘할 것이라라는 통념이 있는데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하는 대학교에서도 지능과 성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지능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참고: (황현지, 대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및 진로계획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014)